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http://kschs.or.kr>

Vol. 5, No. 3, September 2017, pp. 907-914

DOI: <http://doi.org/10.15205/kschs.2017.09.30.907>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기관의 환경요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량의 관련성

류혜겸¹, 위혜진², 정동은³

¹마산대학교 치위생과, ²부산대학교 치과병원, ³메트로 수치과의원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causing stress in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and the stress level of dental hygiene students

Hae-Gyum Ryu^{1*}, Hye-Jin Wi², Dong-Eun Jeong³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²Pusan National University Hoospital

³Metro Soo Dental Clinic

(Received July 26, 2017; Revised August 08, 2017; Accepted August 15, 2017)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causing stress in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and stress levels of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The research subjects totaled 207 and it was analyz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n IBM SPSS ver. 20.0.

Results : The environmental factors causing stress according to the status of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wa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case of Busan practice areas ($p<0.01$), dental university hospitals ($p<0.001$), attendance times prior to 8am ($p<0.001$), quitting times that surpassed 8pm ($p<0.01$), and the number of dentists exceeding 4 ($p<0.01$). It was found to affect the stress level of students when individuals had to stand for a long period of time($p<0.001$, $\beta =0.254$) and with the use of unfamiliar tools and equipment($p<0.05$, $\beta=0.178$).

Conclusions : As a result of the research conducted, it should be concluded that dental clinics should provide rest areas for individuals to focus on clinical practi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program that enables students to communicate with students at any time during the training period.

Keyword :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Environment Factor Stress, Stress Level

*Corresponding author : ryu8102@masan.ac.kr

1. 서론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예방 처치 및 진료 협조 업무를 맡음과 함께 치과건강보험 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중구강 보건 활동가로서 그 사회적 인지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¹⁾.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 정규 대학 3, 4년제의 과정을 마치고 국가고시 1차와 2차를 통하여 의료기사 면허증을 취득한다²⁾.

치위생(학)과 교육 과정 중에 임상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치과 임상에서 실제로 수행해 보는 과정으로 치위생(학)과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³⁾. 이러한 임상실습교육을 통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은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적 가치관 형성 및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수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보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 실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경험적인 요소를 함께 겸비하여야 구강 보건 전문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

임상실습 교과과정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케 해 주며, 임상적 판단과 대인 관계의 이해를 학생 스스로 경험을 통해 전문 치과위생사로서의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⁴⁾.

임상실습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교육 과정도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임상실습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인 불안, 피로감, 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갈등과 불안, 긴장을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은 임상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이며⁵⁾, 때로는 중도에 임상실습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만들기도 한다. 임상을 경험하게 되는 학생은 모르는 진료와 치과 환경, 낯선 스텝과 치과의사의 진료스타일,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의 차이

등 수많은 이유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⁵⁾. 이러한 임상실습은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과 두려움, 역할 모호성, 갈등 등 부정적인 경험을 겪게 하고, 새로운 환경과 능동적 실습 태도 등으로 임상실습과정 중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⁶⁾.

스트레스는 몸에 해로운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 생체가 나타내는 반응으로 스트레스 증상이 반복되면 생리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하며 치료는 물론 상황의 부적응, 판단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어려움을 주고, 최적의 학습과 임상실습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⁷⁾.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생활 과정 중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분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나 간호사, 의료기사, 의료 종사자들은 다른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다고 하였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나친 정도의 스트레스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8,9)}.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Jang et al⁶⁾은 임상실습 시 병원 형태별 치과위생사와 실습 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Kim and Jung⁷⁾, Kim⁸⁾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치위생과 학생과 임상실습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학생의 임상실습 내용의 부수적인 임상실습기관의 환경요인에 대한 스트레스로 즉 실습지역, 병원 유형, 출·퇴근시간, 치과의사 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량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기관의 환경요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량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임상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지역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2,3학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설문 응답이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총 207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16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수집되었으며, Ryu¹⁰⁾와 Kim and Oh¹¹⁾의 연구를 참고하고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Bae¹²⁾의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량 측정도구 BEPSI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이하 BEPSI)를 사용하였고, 요인별 스트레스 중 환경요인 스트레스와 임상실습기관의 현황, 일반적 특성은 Kim⁸⁾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환경요인 스트레스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심하게 느낀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환경요인 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0.696$ 이다. BEPSI의 스트레스량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0.894$ 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0.0 통계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기관의 현황에 대한 빈도 분석과 백분율, 임상실습기관의 현황에 따른 환경요인 스트

레스는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환경요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량의 관련성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207명의 학생이 여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년으로는 2학년 118(57.0%)명, 3학년 89명(43.0%)이고,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 113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과 만족도는 보통 114명(55.1%)이 가장 많았고, 전공 만족도는 보통 113명(54.6%)이 가장 많았다. 거주지는 자택이 150명(72.5%)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 실습 횟수는 1회가 116명(56.0%)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Table 1).

3.2. 임상실습기관의 현황

임상실습기관의 현황으로 실습 지역은 창원 111명(53.6%)으로 많았고, 병원 유형은 치과의원이 142명(68.6%)으로 많았다. 출근시간은 9시까지가 100명(48.3%)으로 많았고, 퇴근 시간은 7시 이후가 88명(42.5%)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의사 수는 1명이 101명(48.8%)으로 많이 조사되었다(Table 2).

3.3 스트레스 수준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환경요인 스트레스 중 오랜 시간 서 있음 3.82점, 낯선 기구 및 장비사용 2.91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 환경요인 스트레스는 2.54점 이었다. BEPSI 스트레스량은 2.08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Division	N(%)
Academic year	2 year	118(57.0)
	3 year	89(43.0)
Health status	Good	113(54.6)
	Average	87(42.0)
	Bad	7(3.4)
Satisfaction of curriculum	Good	58(28.0)
	Average	114(55.1)
	Bad	35(16.9)
Major satisfaction	Good	73(35.2)
	Average	113(54.6)
	Bad	21(10.1)
Abode	Own house	150(72.5)
	Homestay	38(22.4)
	Dormitory	19(9.2)
Number of clinical practice	1	116(56.0)
	2 ≤	91(44.0)
Total		207(100.0)

Table 2. Status of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Division		N(%)
Practice region	Changwon	111(53.6)
	Busan	26(12.6)
	Others	70(33.8)
Clinical type	Dental university hospital	37(17.9)
	Dental hospital	28(13.5)
	Dental clinic	142(68.6)
Attendance time	8 a.m.	16(7.7)
	8:30 a.m.	68(32.9)
	9 a.m.	100(48.3)
	9:30 a.m.	23(11.1)
Quitting time work	5 p.m	36(17.4)
	6 p.m	79(38.2)
	7 p.m.	88(42.5)
	8 p.m.	4(1.9)
Number of dentist	1	101(48.8)
	2	35(16.9)
	3	11(5.3)
	4 ≤	60(29.0)
Total		207(100)

3.4. 임상실습기관의 현황에 따른 환경요인 스트레스

임상실습기관의 현황에 따른 환경요인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결과 실습 지역($p<0.01$), 병원유형($p<0.001$), 출근시간($p<0.01$)에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Scheffe의 사후검증결과 집단별 $p<0.05$ 수준의 평균 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시간($p<0.01$), 치과의사 수($p<0.01$)에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Stress level

Division	Mean±SD
Far from the training center	2.44±0.98
Irregular time to work	2.10±0.99
A shortage of places to relax	2.67±1.09
Rule strict for dress	2.01±0.79
Cross infection	2.38±0.96
Stand for a long time	3.82±0.99
Using unfamiliar tools and equipment	2.91±0.86
When a dental hygienist gets angry in front of a patient	2.00±1.03
Environment factors stress	2.54±0.55
BEPSI stress level	2.08±0.89

Table 4. Environment factor stress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Division	M±SD	F	p
Practice region	Changwon	2.49±0.54 ^a	4.671	0.01 ^{**}
	Busan	2.84±0.48 ^b		
	Others	2.52±0.55 ^a		
Clinical type	Dental university hospital	2.85±0.49 ^b	8.092	0.001 ^{***}
	Dental hospital	2.57±0.39 ^{ab}		
	Dental clinic	2.46±0.56 ^a		
Attendance time	8 a.m.	2.88±0.54 ^c	7.525	0.001 ^{***}
	8:30 a.m.	2.71±0.53 ^{bc}		
	9 a.m.	2.43±0.54 ^{ab}		
	9:30 a.m.	2.32±0.41 ^a		
Quitting time work	5 p.m	2.81±0.46	5.312	0.002 ^{**}
	6 p.m	2.53±0.49		
	7 p.m.	2.43±0.58		
	8 p.m.	2.94±0.58		
Number of dentist	1	2.46±0.58	5.294	0.002 ^{**}
	2	2.42±0.40		
	3	2.47±0.44		
	4≤	2.77±0.51		

*by one-way ANOVA.

^{ab}By post hoc Scheffe tests mean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3.5. 환경요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량에 미치는 영향

임상실습기관의 환경요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량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량의 변량을 17.1% 설명하고 있으며,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Durbin-

Watson은 2.122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서 있는 경우($p<0.001$, $\beta=0.254$), 낫선 기구 및 장비사용($p<0.05$, $\beta=0.178$)에서 스트레스 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The impact stress on the amount of stress

	B	S.E	β	T	p	VIF
Invariable	0.055	0.299		0.185	0.854	
Far from the training center	0.072	0.063	0.079	1.141	0.255	1.182
Irregular time to work	0.071	0.067	0.079	1.066	0.288	1.367
A shortage of places to relax	-0.009	0.061	-0.011	-0.141	0.888	1.387
Rule strict for dress	0.018	0.085	0.016	0.211	0.833	1.403
Cross infection	0.084	0.066	0.090	1.279	0.202	1.243
Stand for a long time	0.229	0.066	0.254	3.441	0.001	1.359
Using unfamiliar tools and equipment	0.185	0.073	0.178	2.549	0.012	1.209
When a dental hygienist gets angry in front of a patient	0.038	0.060	0.044	0.628	0.531	1.203

$R^2=0.204$, adjusted $R^2=0.171$, $F=6.329$, $p=0.001^{***}$ Durbin-Watson=2.122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4. 고 찰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중에 임상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치과임상에서 실제로 수행해 보는 과정으로 치위생(학)과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³⁾.

현장중심교육의 일환으로 임상실습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교육과정 또한 현장중심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기관의 환경요인에 대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량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임상실습기관의 현황에 따른 환경요인 스트레스의 분산분석결과에서 실습지역이 부산인 경우 창원이나 그 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요인 스트레스가 높게 조사되었다. 조사대

상 학교 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창원지역학생이므로 부산지역에서 실습할 경우 주거문제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실습은 흥미로울 수 도 있지만 반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병원유형의 경우 치과대학병원이 치과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요인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Jang et al¹³⁾에서도 실습학생은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치과, 치과병원에서 환경요인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Kim¹⁴⁾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반면 Lee et al¹⁵⁾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치과의원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대학병원의 경우 치과의원에 비해 치과대학의 연속성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공분야별로 구성된 진료실과 타 학교 실습생간의 관계, 엄격한 규율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생각

된다.

출근시간의 경우 8시까지 출근하는 집단이 9시 30분까지 출근하는 집단 보다 환경요인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퇴근시간의 경우 오후 20시 이후 퇴근의 경우 환경요인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Kim¹⁰⁾의 연구에서 총 실습시간의 경우 치과대학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과의원에서 만족도가 낮았고, 하루 실습시간에서도 실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임상실습은 4주에서 5주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임상실습시간 동안은 계속 긴장상태로 지내게 된다. 더구나 이른 출근이 계속되면서 퇴근시간 마저 정확히 지켜지지 않거나 늦을 경우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시간은 교육부에서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나 임상실습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여 주 40시간의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치과의사 수의 경우 4명이상에서 환경요인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사는 각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수행하는 진료내용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치과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진료협조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신분으로 다양한 치과의사의 진료방법을 협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진료내용에 대한 이해력 또한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실제 이를 경험하는 학생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환경요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량에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오랜 시간 서 있는 경우, 낮선 기구나 장비사용이 많은 경우 스트레스 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et al¹³⁾의 결과에서도 실습학생의 경우 환경요인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학생들은 학과에서 전공 관련 부분에 대한 이론공부와 실습경험을 토대로 임상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실습기관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을 관찰하고 전공자와 관계된 직종간의 상호정보교

환, 환자응대, 직장상사나 동기간에 대한 예의범절 등을 배우고, 직장인이 되기 전에 예비 직장인으로서 실습기관에서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서 있음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피로해 지거나, 낮선 기구나 장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작 관찰해야 할 진료들을 놓칠 수도 있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실습기간 동안 수시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임상실습 시 의료기관의 환경요인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구체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점과, 일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환경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로 치과위생사 수, 직원 수, 간호조무사 수 등 환경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더 첨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기관의 환경요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량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임상실습 시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 치위생과 학생 총 207부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습지역이 부산인 경우($p<0.01$), 치과대학병원인 경우($p<0.001$), 출근시간이 오전 8시까지인 경우($p<0.001$), 퇴근시간이 오후 8시 이후인 경우($p<0.01$), 치과의사 수가 4명이상인 경우($p<0.01$) 환경요인 스트레스가 높았다.
2. 임상실습기관에서 환경요인 스트레스 항목으로 오랜 시간 서 있는 경우($p<0.001$, $\beta=0.254$), 낮선 기구 및 장비사용이 많은 경

우($p<0.05$, $\beta=0.178$) 학생들의 스트레스 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임상실습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실습기간 동안 수시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1. Park MY.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 of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06;6(4):243-249.
2. Kang YJ.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6;16(4):625-634.
3. Shim HS, Lee HN. Stress and coping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Soc Dent Hyg, 2014;14(2):139-145.
4. Yoo JH, Kim JH.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16; 16(1):62-69.
5. Lee HN, Kim EM. Anxiety and fatigue related to dental practice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14(2):131-137.
6. Jang SY, Kwon SB, Yang SK. A study on the stress of dental hygienists and student hygienists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by medical center type. J dent hyg Sci, 2012;12(6):682-688.
7. Kim SK, Jung YS.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es and stress coping styles. J Korean Soc Dent Hyg, 2010;10(5): 887-895.
8. Kim HJ. Stresses and it is related factors due to clinical demonstration in college students of dental hygiene. Unpublished ma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8.
9. Lee JH, Jeon ES. A study on oauses of stress experienced by party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during clinical training. J Dent Hyg Sci, 2009;9(1):137-143.
10. Ryu HG. Survey o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and campus life stress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5;3(2):320-327.
11. Kim WS, Oh SM. The trend of research on korean nurses stress program interven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7;5(2):864-880
12. Bae JM, Ahn YO, Park BJ. Association of Stress Level with Smoking Amount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1994;27(1): 1-10.
13. Jang SY, Kwon SB, Yang SK. A study on the stressors of dental hygienists and student hygienists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by medical center type. J Dent Hyg Sci, 2012;12(6): 682-688.
14. Kim HJ. Stress and related factors due to the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8.
15. Lee MJ, Kwon SH, Goo HJ. Study 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in Chanwon.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3;1(3):39-48.
16. Kim YS. A study of th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clinical training institu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0.